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29-44)

You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Matt. 24:29-44)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징조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예수님은 영광 중에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30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며,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큰 나팔소리가 들릴 것인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 속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31절, 살전 4:16). 이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터인데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을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돌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말세에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36절). 예수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은 그 영역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징조들로 보아 지금이 말세의 때인 것만은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속적인 욕심에 끌려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 하십니다(4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5절).

호머 던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1845회, 신약에서 318회 언급되었다고 말하면서, 450번 반복적으로 예언을 하신 예수님의 초림이 이뤄졌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2000번 이상 예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찌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터이니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전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Jesus Christ will clearly come again. Although we do not know when he will come, he will show us the signs of his coming in advance. Therefore, if we are awake spiritually, when he comes, we will joyfully meet him without being embarrassed.

1. Jesus will visibly come again with great glory

“At that time the signs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v. 30).

The day that Jesus comes again is the day of glory, joy, and victory for us who obey God's word and live our lives. However, it will be the day of disaster, judgment, and collapse to those who do not believe in Jesus.

Jesus will come on the clouds of sky in the midst of great power and glory and then all people in the world will see the appearance of him.

Moreover, when Jesus will come again, they will hear a loud trumpet. But it will be so loud that even those who are buried underground can hear it (v.31, I Thess 4:16). And God will send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God will collect those who are chosen by angels from every nation.

2. Jesus will come again like a bombshell in an unexpected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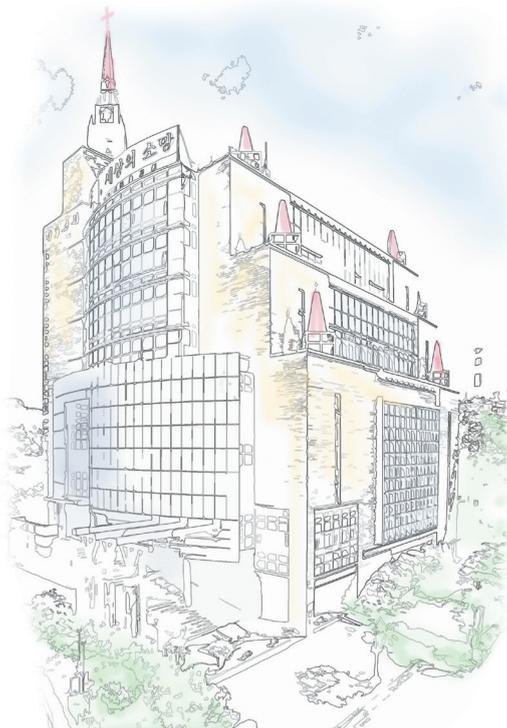
There will be the signs in the end of the world. But no one knows about the day, and hour when he comes (v. 36). The day and hour when Jesus will come again must be completely arranged and done by Holy God who knows all.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son does not get involved in the realm of the Father God.

For the sake of many signs, all of us, can certainly know the time of the end of the world. Nevertheless, our prediction about the advent doesn't influence Father God's decision. That's why as the time passes, we will be apt to forget the advent's day of Jesus and to live our egocentric lives dragged by the worldly greed. Therefore, Jesus says to us that we, by being awake, must be ready for the day of the advent, whether it will be today or tomorrow (v. 44).

My beloved Christians,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 (v. 35).

Homer Duncan says that the prophesy about the Advent of Jesus is mentioned 1845 times in the Old Testament and 318 in the New Testament, and that because the prophesy of repeated 450 times made Christ's first coming come true, the prophesy of the second advent 2,000 times in the Bible must be fulfilled. Although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ecause God's words never pass away, Jesus must certainly come again.

Therefore, by encouraging and challenging each other, becoming always awake and ready for the advent of Jesus, and receiving Him, "O Jesus Christ, com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blessed Christian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 홍해 작전」 개전

주제 :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6월6일(토)~25일(목) / 새벽 5시~6시

2015년 홍해작전(본부장 : 이관규 장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대상 16:10)라는 주제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은혜롭게 시작되었다.

6월 6일(토)부터 6월 25일(목)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박노철 담임목사가 감사로 선다. 홍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원거리 교구의 성도들은 각 다락방별로 모닝콜과 카풀을 이용하여 서로 참석을 독려하기 바란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과 3층 안내석에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

하면 출석상을 준다. 홍해작전 백일장 행사는 유아부부터 초등부는 그림 그리기를, 중등부부터 장년부는 간증문을 모집한다. 홍해작전 기간 동안 금요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며, 주일에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5시 30분에 새벽기도회가 있다.

6월 20일(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로 영아부부터 청년1,2부까지 모두 참석하여 축복기도를 받기 바란다.

매일 아침 8층 만나홀에 간단한 아침식사가 준비된다.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일정 확정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
사랑부·디아스포라부를 시작으로 : 7월 11일(토)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예수님을 만나러 레디~ 고! (요 3 : 16)	박노철 구분혜
유치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와! 예수님이다 (요 3 : 16)	박노철 양세라
유년부	7/24(금) - 25(토)	서울교회	어메이징 그레이스 (롬 3 : 23-24)	박노철 고수은
초등부	7/24(금) - 25(토)	아가페타운	믿음으로 승리해요 (요일 5 : 4)	박노철 심진희
중등부	7/23(목) - 25(토)	아가페타운	Who am I ? (사 43 : 1)	박노철 이진광
고등부	7/30(목) - 8/1(토)	아가페타운	주님을 바라며 뜻을 정하다 (단 1 : 8)	박노철 천세종
청년1부	7/13(월) - 16(목)	강원도 고성	섬기는 기쁨, 누리는 은혜 (행 9 : 31)	박노철 서준권 장재원 정대은
청년2부	7/28(화) - 31(금)	경기도 광주		
사랑부	7/11(토) - 12(주일)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예수님을 따라 갈래요. (마 16 : 24)	박노철 박영준
에바다부	7/30(목) - 8/1(토)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 : 3-12)	박노철 임규현
디아스포라	7/11(토)	서울교회	하나님의 꿈 (창 49 : 22-26)	박노철 서명철
영어예배부	7/17(금) - 18(토)	아가페타운	International in Christ	김다니엘



성도 간에 악수의 교제가 빈번한 교회는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예방차원에서 손소독제를 교회 각층에 비치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출입 시 이용 바랍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72)

(문 17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답) 공관복음서에 의해 전해진 견해는 금요일 설이 확실합니다. 다만 요19:14 말씀에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 이요 때는 제 육시더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글자 그대로 일세기 때 지키던 토요일(유월절)로 해석하면 금요일을 말한 것이 되지만 한 주 동안 유월절 떡을 먹고 양을 잡는 그들 습관대로 하면 아빔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해서 해지는 시간부터 시작되는 15일부터 21일 까지를 유월절로 지키게 되므로 실제로 떡과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인 14일은 유월절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유월절’예비일이란 목요일이 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유월절은 한 주간을 말한 것보다는 유월절 절기의 시작일을 말한 것입니다. 특히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예표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유월절 절기를 예수의 죽음과 연결시킨 대칭적 설명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전 5:7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 예비일에는 두 개의 희생 제물이 죽임을 받았습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양들이 죽었고 다른 하나는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의 양은 죽임을 받아 개인 집에서 잡아먹힌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자의 유월절 떡은 이미 하루 전 즉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B.M.W. 운동



Bus



Metro



Walking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운동

영혼구원의 빛 밝히다



김규태 집사 (비전 2020)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한 많은 분단의 38선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로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대진항을 중심으로 두고 근해 어업과 영세한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면의 전체인구 2,700여명중 중심지인 대진리가 2000여명입니다.

작년 한 해 면 전체에서 출생한 아이는 오직 1명 뿐입니다. 마을의 대다수 젊은 남녀들은 도회지로 떠나고 마을은 나이드신 어르신들 밖에 없습니다.

그 곳에도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심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날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곳 삭막한 벽촌에 몸을 던지신 대진 중앙교회 김춘기 목사님입니다.

어느것 하나 충분하게 없는 열악한 환경과 그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침체해 있었던 이곳에 아내와 아들, 딸 모두를 데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하나만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재적 인원 40명(교회학교 10명, 장년 26명, 목사님 가족 4명)에 새벽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농사를 짓는 성도들의 눈으로 달려가 모내기와 김매기로 하루종일 허리를 펴지 못하고 마을 곳곳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을 보살피며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심방 또한 끊이지가 않습니다. 김길숙 사모는 교회 일뿐아니라 마을 유아복지시설에서 매일 봉사하시고, 중학교 2학년 큰 따님은 독학으로 피아노를 익혀 주일예배 반주를,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 역시 아동부 예배에 반주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뿐만 아니라 매주 철책선 최전방 22사단 GP에 올라가 군인들을 위한 예배와 군전도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가족 모두가 전천후로 헌신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외부 지원으로 어렵게 대진항과 검푸른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아담한 예배당을 신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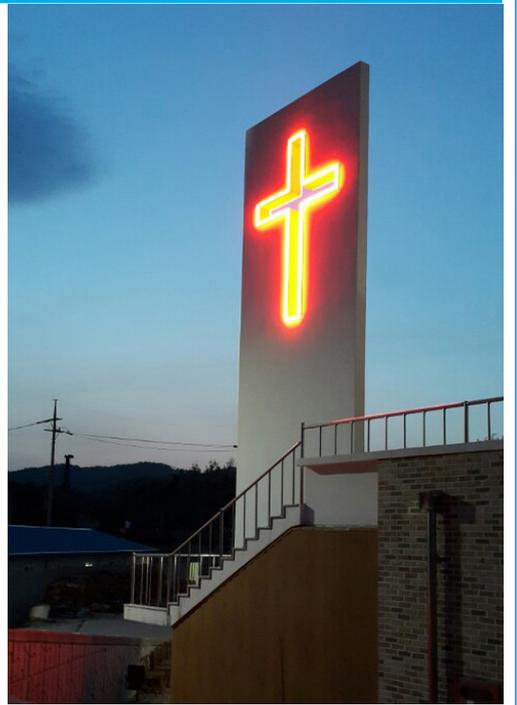
하지만 그 동안 교회재정의 어려움으로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 탑에 불을 밝힐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몸담았던 교회의 장로님 소개로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들으신 장로님과 비전 2020운동 본부 부원들은 기도로 무장하여 열심을 다해 동참하였습니다. 적지만 십시일반으로 정성껏 헌금하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의 특성상 태풍에 맞먹는 강한 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어와 마을 구조물들을 날려 버리고 염분과 수분들이 많은 바닷바람에 웬만한 조명이나 시설은 오래지 않아 삭아버렸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지원 비용도 몇 곱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8일 저녁 8시 드디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 했던 역사적인 십자가의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점등식 예배에는 대진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서울교회의 오정수 장로님, 최광성 장로님과 10여 명의 비전2020 운동본부 부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춘기 목사님은 설교에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 등불은 교회의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매년 몇번씩 곳판과 풍어제를 드리며 귀신을 일삼아 처럼 섬기는 이곳 마을 주민들에게 영혼구원의 은총을 내리는 주님의 큰 선물" 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수 장로님은 격려사에서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어려워지는 농어촌 교회의 실상을



보며 우리는 잠시라도 큰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번을 기회로 대진중앙교회가 하루 빨리 성장 부흥하여 더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지원할 수있게 되기를 소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회 앞마당으로 나와 카운트 다운에 맞추어 일제히 점등버튼을 누르자 마치 거대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듯 붉은 십자가 등이 들어왔고 때맞춰 준비한 80여발의 폭죽이 터지면서 어두운 삼팔선 하늘을 일제히 수 놓는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대진중앙교회 40여명의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던 십자가의 불빛은 이제 영혼구원의 빛이자 고기잡이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항하는 어부들이 길을 찾는 등대로서의 사명을 다 할것입니다. 그후로 며칠이 안되어 김춘기 목사님께서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보초를 설때마다 멀리 십자가의 불빛을 보면서 7명의 22사단 장병들이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결심이 서게되어 진중예배를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 이경희 권사님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할머니!

함께한 시간, 추억들이 정말 많고 소중해서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행복하게 보낸 시간이 어제 같은데... 저 2주만 있으면 방학이라 한국 가는데... 겨울 방학 때 할머니께서 '우리 소연이 한국 올 때 까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있을게 잘 다녀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직 생생한데...

할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사실 아직 실감 안나오.

그리고 멀리서 마지막 인사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랑 아침 일찍 교회 가고, 연주회 있을 때면 제일 예쁜 꽃다발 사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 보러 명동에 가면 둘이 쇼핑하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어디만 갔다 오시면 저랑 오빠 선물 챙겨 오시고 그러셨죠.

어렸을 땐 주말에 등산도 같이 가고... 할머니께 받은 그 많은 사랑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 제가 정말 많은 사랑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프신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미국 와서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미국 오기 전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할게요.

이제 할아버지 옆에서 편히 쉬세요.

정말 많이 그립고 사랑해요.

할머니가 많이 예뻐해 주신 소연이 올림♡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박동열 집사 (7교구)

“아빠, 홍해작전 또 언제 해? 새벽기도 가고 싶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몇 개월전부터 이진이가 아빠인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순간 이진이의 믿음이 더 자란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고 홍해작전에 가고 싶은 이유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냐고 이진이에게 되물었습니다.

“응, 씨리얼도 먹고 라면도 먹고 선물도 주니까...”

이진이의 순수한(?) 대답에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문득 나 자신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홍해작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홍해작전이 시작되었지만, 올해의 홍해작전이 내 평생 가장 귀하고 귀한 홍해작전 새벽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홍해작전을 통

하여 가정의 기도응답은 물론이고 너무도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제가 훈련되어지고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새벽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끝송이 보다 더 달고, 드러지는 기도는 더욱 간절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홍해작전 주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라는 홍해작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달음질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진아 빨리 일어나자. 씨리얼 먹으러가자~”

해병대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해병대 신병들에 대한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이 비전2020운동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 주관으로 오는 6월 13일(토) 오후2시에 포항 해병대교육훈련단 교회에서 거행되며, 박노철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당일 오전 6시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6월10일(수) 정동제일교회에서 통국기도회 설교를 한다. 6월13일(토) 종교개혁500주년월례기도회 및 논문발표회를 소집한다.

■ 주일식당방사 : 빌립 선교회(6.7) 안드레 선교회(6.14)

■ 금주의 식사 제공 : 김규송 집사 이명숙3 권사 가정 이광열 집사 염금순 권사 가정 (지녀결혼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6월 28일까지 주일찬양예배 시에 드리는 교구별 특별찬양으로 성도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3.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교회 모든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애국애족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기부와 기쁨

이동귀 집사 (호산나대학 부학장)

지난 6월 1일 파주에 사시는 이경하집사께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아 보유하고 있던 가평시내 토지 740평(공시지가 5억원 상당)을 호산나대학에 기부하였습니다.

서울교회나 호산나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경하집사님께서 평소 장애인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평을 지나가는 길에 몇 번 조용히 호산나대학을 둘러보면서 활발하게 웃고 떠들며 즐겁게 교육받고 있는 호산나대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신도 괜히 행복해지곤 했다고 하십니다.

최근 기도를 드리던 중 하나님께서 “꼭 호산나대학에 기부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자신은 장애인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니 호산나대학에서 장애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시고 하셨습니다.

지난 6월 1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등기서류를

받으며 가족과는 충분히 상의하셨는지 묻자, 기부자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가족과 상의할 것이 무엇이나”고 하셨습니다.

또 아무런 기부행사없이 토지를 기부하시며 “그동안 선친께서 물려주셔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땅인데 섭섭하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되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시며,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기부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이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뒤에서 조용히 호산나대학을 지켜보며 기도로 후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호산나대학 교직원 일동은 기부소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새삼 깨달으며 이경하 집사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또한 집사님의 숭고한 뜻을 서울교회 성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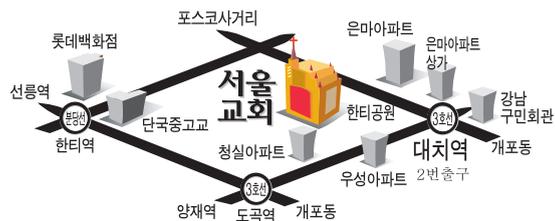


좌로부터 이동귀 호산나대학 부학장, 오정수 장로, 기증자이신 이경하 집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요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